

新約聖書에 나타난 μαθητής의 用法에 대한 研究

朴 英 哲

目 次

- | | |
|---|---|
| <p>I. 序 論</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研究動機 2. 研究目的 3. 研究方法 <p>II. 제자에 대한 一般的 定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어 대사전의 정의 2. 웹스터사전의 정의 <p>III. 제자에 대한 語源學的 考察</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sciple의 語源 2. μαθητής의 語源 3. 탈미드(תלמיד)의 語源 | <p>IV. μαθητής의 用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μαθητής의 一般的 用法 2. 구약성서와 유대교에서의 用法 3. 신약성서에서의 用法 <p>V. 12제자에게서 발견되는 제자의 概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움에의 전폭적 헌신 2. 사도로서의 제자 概念 <p>VI. 제자의 現代的 概念</p> <p>VII. 結 論</p> |
|---|---|

序 論

1. 研究動機

최근에 들어 기독교에는 전세계적으로 크게 擴散되고 있는 二大運動(movement)의 물결이 높이 일고 있다. 그것들 중 하나는 특히 神學的인 면에서 많은 論難을 야기시키고 있는 은사운동(Charismatic movement)¹⁾으로서 소위 성령의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거센 물결이며 또 하나는 宣敎方法論, 또는 基督教 敎育學的 측면에서 근래에 점차적으로 초교파적, 세계적

¹ John Mac'Arthur, *The Charismatic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제 1장 참조.

으로 高潮되고 있는 현대제자운동(modern discipleship movement)²⁾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거대한 물결을 체험하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그것들의 장단점을 검토, 문제가 되는 점들은 예리하게 막거나 제거하고 타성주의(mannerism)에 빠진 신앙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고 力動的 복음전파의 새 轉機를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혜 역시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운동중 전자인 은사운동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神學的으로, 敎理的으로 批判과 검토를 가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운동의 性質 自體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막연하게 염려, 또는 환영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제자운동을 대하거나 그것을 敎會活動에 적용할 수 있는 準備態勢가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제자(弟子·disciple)라는 개념, 즉 제자운동의 핵심이 되는 개념조차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제자운동의 效果的 受容 및 活用을 위해 제자 개념을 명백하게 해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 개념을 敎育學的 側面에서 哲學的 次元의 규정과 정립을 이룸으로써 이 운동을 건전하게 評價하고 수용하여 이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점을 極大化시켜 나갈 수 있게 할 강한 필요성을 느낀다.

2. 研究目的

본 논문은 끊임없이 번져가고 있는 제자운동이 內包하는 제자(μαθητής)의 개념을 이 단어에 대한 성서의 用法, 특히 신약성서에서의 그 用法을 파악함으로써 그 용어 사용에 있어 混亂을 막게 하며 μαθητής의 資質과 資格, 水準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자운동이 指向해야 할 제자훈련 방향을 제

²⁾ 이 운동은 주로 대학생 및 직장인 선교단체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급되기 시작했다(C. C. C., Navigators, U. B. F., S. B. F., JOY Mission 등), 그러나 이러한 제자운동은 오늘날 미국의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부의 실천신학 과목에 채택되어 교육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alifornia Baptist College에서 제자학에 대한 7개의 일련의 강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국의 몇몇 교역자들이 이 운동을 개교회 목회에 적용시킴으로써 교회성장에 좋은 유익을 얻고 있다.

시하여 진정한 의미의 제자운동, 건전한 제자운동을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定着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 또한 제자운동에 대한 神學的 根據를 부가
적으로 提示함으로써 건전한 제자운동의 바탕을 확인하고자함이 본 論文의
目的임을 밝혀둔다.

3. 研究方法

제자(μαθητής)의 意味를 성서를 중심으로 語源學的 側面에서 考察, 分
析하고 辭典에서 규정하는 제자의 定義를 비교해보고 제자의 類似語, 또는
同意語들을 意味論的 立場에서 밝혀으로써 제자(μαθητής)의 개념을 言語
學的으로 밝혀본다. 그 다음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μαθητής가 사용된 경우
를 類型別로 分類하여 오늘날 파급되고 있는 제자운동에서 제시되는 제자
의 개념과 형태가 신약성서의 어느 類型에 속하는지를 비추어 보아 현대적
의미의 제자의 개념과 신약성서에 나타난 μαθητής의 해당 유형을 비교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운동의 神學的 根據와 教育的 意義를 성서 및
기타 관계 서적들로부터 抽出, 提示하기로 한다.

I. 제자에 대한 一般的 定義

1. 한국어 대사전의 정의

우선 우리말 사전에서 제자(弟子)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한국어대사전의
경우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받은 사람”으로 제자를 정의하면서³⁾
유사어로는 徒弟, 門人, 門徒, 門弟子 등을 소개해 주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제자란 그 相對概念인 스승을 前提로 하여 가르침을 받는 관계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배움을 주는 자
의 상대개념인 제자를 나타내는 정의라 하겠다. 또한 이 사전은 카톨릭 용
어로서의 제자를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특히 선택되어

³⁾ 한국어사전 편찬회(編), 「한국어대사전」(서울: 현문사, 1964), p. 1461.

예수와 생활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위해 훈련받고 전도에 파견된 열두 제자”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독교적 의미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역사적인 12제자를 지칭하는 固有代名詞化한 제한된 개념임을 제시해준다.

2. 웹스터 사전의 정의

영어 사전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웹스터 사전(Webster's Dictionary)은 제자(disciple)를 일반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훈(가르침)을 받는 자, 또는 배우는 자(learner)로서 특히 자기 스승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돕는 자”를 가르킨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각도에서 추종자(follower)라는 의미의 제자를 특히 ① 그리스도 생존 당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로서 특히 12사도 중 한 사람이나 70인중 한 사람, ② 루벤의 제자, 칸트의 제자 등과 같이 예술이나 철학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학파를 지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⁵⁾ 여기서도 우리는 제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disciple이 一次的으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면서도 보다 한층 발전된 개념인 learner의 의미로는 스승의 교리를 단순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돕는, 보다 적극적인 제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뿐만 아니라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歷史的 제자들을 일컫는 단어로 固定化된 개념을 갖는 것을 보게 된다.

웹스터 사전은 disciple과 同意語(synonym)로서 pupil, scholar, student를 제시하고 이러한 同意語들에 비해 disciple은 성서적 개념의 영향 때문에 다른 유사어들의 개념과 구별되게 “자기의 주인이나 선생의 견해나 교리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의미를 내포한다”⁶⁾고 제시해 주면서 pupil은 선

⁴⁾ Loc. cit.

⁵⁾ William Allan Neilson (ed.),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2nd ed. (Massachusetts: G.&C. Merriam Company, 1959), p. 742.

⁶⁾ Loc. cit.

생이 개인적으로 돌보아주는 대상자라는 개념을 내포하는 용어이며 scholar는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서의 개념을 내포하며 student는 보다 고등한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예를 들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임을 밝혀줌으로써 disciple의 개념과 그것들과의 차이점을 구분, 제시해 준다.

또한 disciple이 동사(動詞)로 사용될 경우 “가르치다”(to teach), “훈련시키다”(to train), “벌을 주다”(to punish), “징계하다”(to discipline)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제자의 개념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주고 받는 관계를 넘어서 강력한 교육수단을 매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제자(弟子) 또는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일반적 의미로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그것의 성서적 영향과 교회에서의 사용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나 70제자를 나타내는 일종의 代名詞化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 제자에 대한 語源學的 考察

1. Disciple의 語源

이것의 語源은 라틴어 *discipulus*로서 그 의미는 “매우 유사하게 동등한 것”이라는 뜻의 *discere*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명사이다.” 이 라틴어 단어를 영어의 disciple이 갖는 개념과 결부시킬 경우 그것의 의미는 思想, 哲學信仰, 敎理體系, 價值觀 등 스승의 모든 것, 또는 특수 영역의 것을 배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움을 받는 자가 스승의 수준과 매우 유사한, 거의 동등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개념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⁷ P. E. Davies, “Disciple,”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ed. by George A. Buttrick and Others, I (V. vols.;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p. 845.

본 논문의 뒷부분에서 언급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개념, 곧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개념을 disciple이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2. μαθητής의 語源

제자(disciple)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μαθητής이다. 이 단어는 “내가 배우다”라는 뜻의 μαθηάω로부터 온 명사이며 동사 μαθηάω는 “선생과 같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우다”, “배우다, 알게 되다”, “발견해내다”, “교훈보다는 경험과 행습으로써 전념하여 배우다”라는 뜻을 갖는다.⁸⁾ 이 개념에 따르면 μαθητής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 배워서 알게 되는 자, 새로운 사실이나 진리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발견하는 자, 또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함으로써, 즉 삶을 같이 함으로써 스승의 모든 면, 또는 특별한 면을 진폭적으로 배우는 자로 이해될 수 있다.

3. 탈미드(תלמיד)의 語源

구약성서에서 제자(disciple)라는 단어는 흠정역(KJV)의 경우 오직 이사야 8:16 한 곳에서만 발견된다. 그리고 70인경(LXX)에서는 제자(μαθητή)라는 단어를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μαθητής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תלמיד도 역시 히브리 원어성서의 경우 오직 한군데서만 발견되는데 그것은 역대상 25:8이다. 그런데 이 תלמיד는 그 語源이 동사 라마드(למד)이며 그 의미는 “정벌하다”로서 특별히 소 따위의 가축들을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다. 이 라마드는 “배우다” 또는 “……하는데 익숙하게 되다”라는 뜻을 지니는 것이다.⁹⁾ 이와 같은 語

⁸⁾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 491.

⁹⁾ Samuel Prideaux Tregelles (trans.), *Gesenius's Hebrew and Chaldee*

源學의 概念에 따르면 $\gamma\iota\upsilon\tau\eta\iota\varsigma$ 는 특별히 서투르거나 숙달되지 못한 자를 칭하거나 험한 훈련 등을 통하여 가르치고 길들이는 대상으로 이해되며 여기서 구약시대의 교육방법에 대한 약간의 정보도 얻게 된다.

Ⅲ. μαθητής의 用法

1. μαθητής의 一般的 用法

유대인의 개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헬라인의 개념으로부터 生成된 μαθητής의 일반적 용법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μαθητής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헬라 문화권에서 이 단어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를 파악해 본다. Kittel(Gerhard Kittel)과 Friedrich(Gerhard Friedrich)가 편집한 신약성서 신학사전(*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에 따르면 이 단어에 대한 意味論의 分析은 다음과 같다.¹⁰⁾

첫째로 이 단어는 자신의 마음을 어떤 곳으로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주로 배우는 것과 관계된 것이며, 특히 스승과 相互人格的 關係가 이 배우는 過程에 내포된다.

이 단어가 갖는 두번째 일반적 용법으로의 의미는 일종의 기술적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서 그 교훈을 받는 자가 지식적으로 자기보다 월등한 권위를 지닌 자를 依存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이 依存關係는 결코 와해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뜻을 지닌다.

셋째로, μαθητής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pp. 438-439.

¹⁰ Gerh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 by Geoffrey W. Bromiley, D. Litt., D.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8) S. V. μαθητής.

있는 자들 간의 知的 連結을 나타내는데에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예를 들면 어떤 철학사상을 이어 받을 경우 그것을 이어 받은 사람을 *μαθητής*로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로부터 *μαθητής*는 앞서 살펴본 pupil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disciple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다. 사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μαθητής*로 불리워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그 이유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人格의 關係를 경시하고 자신들의 궤변철학을 천박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소피스트들의 교육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μαθητής*의 개념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자와 전달받는 자 사이에 理想的인 人格의 交際關係가 강조되었으며 그것은 外樣보다는 內的 關係를 중시하는 경향이였다. 소크라테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보다 스승의 인격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¹¹⁾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새롭게 淨化된 *μαθητής*의 개념은 후에 신약성서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관계 속에 스며있는 理想的 關係를 간파하고 그 추종자들을 *μαθητής*로 부를 수 있게 해준 근거로 볼 수 있으며 그 당시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부족을 느끼지 못할 단어였음에 틀림없다.

이 밖에도 헬라시대에 *μαθητής*는 밀교나 헬라 종교 창시자 또는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종교적 차원의 교육을 받던 자들을 일컫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상의 講用法을 통해 *μαθητής*가 평범한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불리워지긴 했으나 보다 밀도있는 교육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¹¹⁾ Loc. cit.

2. 구약성서와 유대교에서의 用法

1) 구약성서의 경우

헬라이어 *μαθητής*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לָמֵד*은 구약성서에서 역대상 25:8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극히 일반적 의미에서 사용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구약성서에서 제자의 개념을 추적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לָמֵד*의 語源인 동사 *לָמַד*를 다름으로써 구약에서의 배움, 교육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לָמַד*는 구약성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의 계시와 관계되어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배움의 행위를 나타내며 이러한 배움의 행위는 전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배워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選擇的인 意圖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을 제자로 구별하여 계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לָמֵד* 개념이 形成되지 않았다고 추리할 수 있다.¹²⁾

그러나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לָמַד*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율법을 배우는 자들은 배우는 일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투신하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水準에 이르기 위해 엄격한 훈련과 자기 징계를 가하기도 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율법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개인과 국가의)의 최고의 권위임과 동시에 목표로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으므로 그들의 배움의 방법은 전폭적 헌신의 방법이었다고 분석된다.

2) 랍비들의 概念과 用法

랍비(Rabbi)들의 세계에서 사용된 *לָמֵד*는 앞서 밝힌 바 있는 語源, 動詞 *לָמַד*의 특수한 用法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배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서와 유대교 傳統을 배우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לָמֵד*는 일종의 명예로운 호칭이기도 했는데 이는 *לָמֵד*가 전폭적으

¹² Loc. cit.

로 투신하여 공부하고 배운 토라(Torah) 자체의 영광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이 경우 $\Gamma\mu\lambda\eta$ 가 행한 배움은 自習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승(גון)으로부터의 배움을 前提로 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랍비들로부터 율법을 배울 때 경청해야만 했으므로 $\Gamma\mu\lambda\eta$ 는 “듣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¹³⁾

그러다가 유대교가 헬라 문화의 영향권 속에 流入되면서 오직 율법을 배우는 것에만 관계되어 사용되던 $\Gamma\mu\lambda\eta$ 가 그 교육내용은 여전히 율법과 성서에 관계된 것이었으나 그 用法에 있어서는 헬라 세계에서 자기 스승의 지식과 知性體係를 배우고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붙여진 $\mu\alpha\theta\eta\tau\acute{\eta}\varsigma$ 를 $\Gamma\mu\lambda\eta$ 의 적절한 번역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3) $\mu\alpha\theta\eta\tau\acute{\eta}\varsigma$ 와 $\Gamma\mu\lambda\eta$ 의 관계

랍비들이 사용하던 $\Gamma\mu\lambda\eta$ 와 헬라 세계에서 사용하던 $\mu\alpha\theta\eta\tau\acute{\eta}\varsigma$ 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mu\alpha\theta\eta\tau\acute{\eta}\varsigma$ 는 $\delta\iota\delta\acute{\alpha}\sigma\kappa\alpha\lambda\omicron\varsigma$ (선생)를 항상 동반하면서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상 $\mu\alpha\theta\eta\tau\acute{\eta}\varsigma$ 와 $\Gamma\mu\lambda\eta$ 는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랍비들의 기록문서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Gamma\mu\lambda\eta$ 의 복수형인 $\omicron\Gamma\mu\lambda\eta$ (탈미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뒷받침해 준다.¹⁴⁾

3. 신약성서에서의 用法

신약성서에서 $\mu\alpha\theta\eta\tau\acute{\eta}\varsigma$ 는 그 용법과 그것이 사용된 대상의 類型을 크게 세 種類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類型들 가운데서보다 명확한 $\mu\alpha\theta\eta\tau\acute{\eta}\varsigma$ 의 개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類型은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특정한 神學(信仰) 體係를 배우고 추종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요한의 제자”(마9:14), “바리세인의 제자”(요3:25), “모세의 제자”(요9:28) 등의

¹³ Loc. cit.

¹⁴ Loc. cit.

표현이 이 첫번째 類型에 해당한다.

두번째 용법에 해당되는 類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代名詞로 쓰인 경우이다. 예컨대 사도행전의 경우 대부분의 μαθητής(또는 μαθητοί)가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類型 중 또 다른 예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일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μαθητής로 불리워짐과 동시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제자로도 기록된 경우가 있다(바울의 제자; 행 9:25).

세번째 類型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또는 70인의 제자들을 독특하게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경우이다.¹⁵⁾

신약성서에서 “제자(들)”라는 단어는 259회에 걸쳐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서 대부분의 경우가 4복음서에서 나타나거나 무려 232회나 된다. 그리고 나머지 27회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며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과 계시록에서는 한번도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μαθητής가 주로 세번째 類型에 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즉 신약성서에서의 μαθητής 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생활을 같이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小數의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었음을 파악하게 된다. 바울의 서신서의 경우 μαθητής의 두번째 類型에 해당되는 개념을 하기오스(ἀγός), 즉 성도라는 단어로 代置하여 사용했으며 이 단어는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 57회에 걸쳐 나타나며 이 하기오스도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볼수 있다(롬 15:25; 엡 4:12 참조).¹⁶⁾

1) 첫번째 類型의 用法

이것은 “요한의 제자”, “바리세인의 제자”, “모세의 제자” 등 특정한 스승으로부터 종교적 교리를 배우던 자들을 지칭한 것으로서 여기서 類推해

¹⁵ Carl L. W. Grimm, *A Greek-English Lexicon*, trans. by Joseph H. Thayer (Edinburgh: T&T Clark, 1956), p. 386.

¹⁶ Carl Wilson,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Disciple Build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p. 51.

낼 수 있는 점은 모두가 토라에 대한 열심, 또는 神的 權威를 인정받는 預言者의 소리에 전심하여 경청하며 배우는 일에 전폭적으로 삶을 헌신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칩례요한의 제자들의 경우 요한의 생존시 그와 함께 세상과 斷絶된 광야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요단강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며(막 2:18; 눅 5:33; 눅 7:18,19; 마 9:14), 바리세인의 제자들 역시 토라를 중심으로 한 율법의 율타리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인 자들로서¹⁷⁾ 율법에 대한 그들의 배움의 자세는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체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온전히 헌신한 전 생애가 배움의 과정 그것이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들의 율법과 傳統(율법의 율타리: the hedge of Law)에 대한 열심 때문에 *μαθητής*의 개념이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막 2:18; , 눅 5:33; , 마 22:16; 막 9:14 등 참조). 우리는 이들의 이와 같은 열심을 “모세의 제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요한복음 9:1—34 문단 가운데서 나온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자 그 문제로 당시의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에게 論難이 일게 되었고 고침받은 소경을 소환하여 심문하는 중에 자신들의 종교적 權威를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조시키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인정받던 모세의 神的 權威에 자신들의 권위를 同一視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로 불렀다. 즉 종교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身分을 모세의 권위에 완전 의탁함으로써 제자의 의미는 전폭적 信賴 또는 依賴의 개념임을 보여준다.

2) 두번째 類型的 用法

여기에 해당하는 類型은 특히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μαθητής*가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새신자들을 일컫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¹⁷ H. E. Dana, *The New Testament World* (Tennessee: Broadman Press. 1944), pp. 118—119.

구체적인 예로는 사도행전 2:41에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는 말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μαθητής의 개념은 배우는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종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6:1,2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2절에서 12제자들은 사도(ἀπόστολος)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짐으로써 그외의 신자들을 μαθητής로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 제시해 주었다(6:7; 9:1,19,38 참조). 또한 11:26에서 안디옥 교인들(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는 말은 더욱 더 이 두번째 유형의 용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의 용법은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6:66에서 예수께서 살과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던 자들은 12제자들 외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교훈이 어렵다고 물려간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 중에 많이 물려가고”라는 표현으로 묘사했다. 이것은 12제자들과 같이 전폭적인 헌신을 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의 μαθητής 용법의 유형을 드러내주는 또 다른 예라 하겠다.¹⁸⁾

3) 세번째 類型의 用法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은 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제한되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간 직접 훈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사도들)을 지칭하는 일종의 固有代名詞와 같은 용법의 유형인 것이다(마 10:1; 11:1; 12:1; 막 8:27; 눅 8:9; 요 2:2; 3:22 등, 복수형으로는 마 13:10; 14:19; 막 10:24; 눅 9:16; 요 6:11 등). 현대 제자운동에서 갖는 제자의 개념이 단순히 배우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일반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훈련되어진, 精銳化한, 活動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제자를 제시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세번째 유형의 용법이라 하겠다. 즉 이들 12제자들은 그리스도와 3년동안 삶을 같이 하며 삶의 태도, 靈的 價値觀, 진정한 敎理體系 등을 몸으로 體得한 자들로서

¹⁸ Carl L. W. Grimm, op. cit., p.386.

사실상 하나님의 교회를 세계 歷史 속에 탄생시키는 중요한 產婆役을 담당했으며 하나님의 왕국전파에 決定的 役割을 담당한 자들이었다.

IV. 12제자에게서 발견되는 제자의 概念

우리는 이제 본 논문의 核心部에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件事을 통해 훈련시킨 결과로 탄생된 제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그분이 마음 속에 품으셨던 세계 救贖課業 戰略¹⁹⁾으르셔의 제자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제자의 개념을 언어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救贖課業을 보다 能動的, 積極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 배움에의 전폭적 헌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여 훈련시킨 제자들은 그 당시 社會的으로나 宗教的으로 그다지 중요한 位置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으며 經濟的인 면이나 學識에 있어서도 결코 탁월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社會의 下位階層의 사람들로서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으며 “세상 기준에 따르면 ‘학문 없는 凡人’(행 4:13)이었으나 그들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자들이었다”²⁰⁾는 점에서 그들의 특징을 찾아보게 된다. 그들의 배우려는 태도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배우는 일에만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종류의 積極的인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3년간의 事役期間은 이와 같은 배움의 자세를 지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로 가득찼으며 “이 3년 기간동안의 많은 시간들이 이들에게 집중되

¹⁹ 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Old Tappan: Fleming H. Revell Company, 1977), p.18.

²⁰ *Ibid.*, pp.23-24.

²¹ Leroy Eims,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Navpress, 1978), p.38.

있었다.”²¹⁾ 이들 역시 삶의 한 부분에 배움의 자세를 두고 예수께로부터 어떤 면을 약간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완전히 투신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원래 “開化되지 못한 적은 무리, 즉 가망성이 없는 개개인들”이었으나 배움과 훈련을 통해 “開化된 무리”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²²⁾ 그들은 개화되지 못했었을 뿐 아니라 성격이 급한 상태에 있었고 죄에 대한 뚜렷한 경향을 지녔으며 어리둥절한 영혼과 어둡고 둔한 知力을 지닌 자들이었으며 지극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선생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자들이었다.²³⁾ 그러나 이러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그 분을 따르며 그 분의 가르침과 훈련에 衷心全力한 사실은 그들이 후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국 전파의 위대한 事役者로 사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께로부터 배움에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그 초대에 응했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사촌들과 배를 버려두고 배우는 일에 투신했으며²⁴⁾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²⁵⁾ 또한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들의 배움에의 전폭적인 헌신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막 10 : 28). 그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 자체를 같이 하면서 그로부터 모든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이러한 배움의 방법은 그들을 全人的으로 敎育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돕는 자에 불과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수시로 하나님의 왕국의 교리를 배우며 왕국 사업에 동참,

²² 박영록(譯), 「선생예수」, 존 M. 프라이스 원저 (서울: 침례회출판사, 1978), pp. 32-33.

²³ Ibid., pp. 31-47.

²⁴ 막 1 : 16-20 참조.

²⁵ 마 9 : 9; 눅 5 : 27-28 참조.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왕국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요원으로 훈련되어진 자들이었다.²⁶⁾

2. 사도로서의 제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世界救贖計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상에서의 事役期間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計劃과 目的을 달성키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決定的 戰略을 가져야만 했다. 그 戰略이 實現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全生涯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즉 자신의 승천후 그를 대신하여 왕국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질적인 제자들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또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훈련시키도록 하는 이른바 靈의 再生産 戰略의 構想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의 至上命命(The Great Commission)을 부여했으며(마 28:18-20) 그 명령의 가장 根本을 이루는 核心 內容이 제자 삼는 일(disciple-making)이었다.²⁷⁾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意圖한 μαθητής의 개념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受動的이고 小極的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자라는 개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혹자는 그러한 개념은 오직 12제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지극히 제한된 개념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普遍的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至上命命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은 명백히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대상으로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주장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기간동안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막 3:

²⁶ A. B. Bruce, *The Training of the Twelve*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9), p. 30.

²⁷ Virgil Gerber, *A Manual for Evangelism/Church Growth*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3), p. 14.

14; 6 : 30; 마 10 : 2 참조). 그들의 使徒職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점으로 具體的으로 행사되었으며 사실상 그들 12제자들이 主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훈련되어진 제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각처에 흩어져 그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안디옥 교회로 들을 수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理論과 主張들이 亂舞하긴 하지만 로마 교회의 起源 역시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을 暗示해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3년 사역기간동안 12제자에게 집중한 이유를 그들을 독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世界救贖計劃과 戰略을 간과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12제자들만이 독특하게 지녔던 여러가지 특징적인 면들을 솔직히 인정치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작별하는 순간 그들에게 제자를 삼는 일을 위탁한 사실은 12제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훈련된 결과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그 수준의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얻어내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이 12제자들에게서 파악되는 *μαθητής*의 중요한 두가지 개념은 첫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댓가를 지불하고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세를 지닌 자들이라는 개념과 둘째, 세계구속 계획의 실행자로 위임받은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신약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μαθητής*의 유형보다도 엄격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내포하는 제자라는 用語는 오늘날 복음전파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각 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의 참된 개념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指標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V. 제자의 現代的 概念

이제 우리는 현대제자운동에서 발견하게 되는 제자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신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μαθητής*와의 相關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생 선교회(C.C.C)에 깊이 관여한 바 있는 쿠네(Gary W. Kuhne)가 제시한 제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제자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장하고 있는 자이며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이며 자기의 열매를 보존하기 위해 양육을 하고 있는 자”²⁸⁾라고 했다. 또한 쿠네는 “제자훈련이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영적 성숙을 개발시키고 영적 재생산을 가져오게 하는 사역”²⁹⁾이라고 정의한 가운데서 제자의 개념은 영적 성숙을 개발하여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암시해준다. 쿠네에 의해 제시된 이상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제자의 개념이 첫째는 영적 성숙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이며 事役面에서는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그 전도의 열매를 양육하는, 이른바 영적 재생산이 가능한 자를 뜻함을 볼 수 있다.

한편, 네비게이토(Navigators) 선교회 태평양 지역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헨리치슨(Henrichsen)이 제시한 제자의 정의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성서에 근거하여 바르게 결정하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자”³⁰⁾로서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이 되면서도 제자와 성서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역적인 면에서 제자를 “필요를 느끼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돕는 자”³¹⁾로 표현하여 제자의 특성을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

²⁸⁾ Gary W. Kuhne, *The Dynamics of Personal Follow-Up*(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7), p. 21.

²⁹⁾ Gary W. Kuhne, *The Dynamics of Discipleship Train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p. 16.

³⁰⁾ Walter A. Henrichsen, *Disciples are Made-not born* (Wheaton: Victor Books, 1976), p. 31.

³¹⁾ Loc. cit.

를 돌보고 충족시키는 자라는 개념을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 침례대학은 1976 부터 동대학에 제자학 講座(Chair of Discipleship)를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중인데 이 講座의 철학에서 제시하는 제자의 개념은 훈련받음으로써 倍加의 전략으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위탁 받은 자로서, 제자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는 “육신적 안정,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말미암는 주의산만, 물질적 소유 따위를 초월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며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한 자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배움의 자세가 헌신적인 것이어야함과 동시에 성서와의 밀접한 관계와 타인의 영적인 문제를 돕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제자협회(Worldwide Discipleship Association)의 대표자인 윌슨(Carl Wilson)은 그의 저서에서 적절히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새신자들을 안타까와 하면서 그 相稱概念으로 복음 사역자로 훈련된 제자의 개념을 제시해 주었다.³²⁾ 그가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여 독립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至上命命을 수행하는 자이다.

이상의 현대적 개념을 綜合해볼 때 현대제자운동이 제시하는 제자란 첫째, 自身の 內面的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기 위해 영적 성장을 계속하는 자, 둘째, 세계구속과업을 자신에게 주어진 召命으로 알고 그 일에 효과적으로 훈련받은 자, 셋째, 그것을 위해 전폭적으로 배우는 일에 투신하는 자, 넷째, 성경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종합해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제자운동이 제시하는 제자의 개념과 신약성서의 12제자에게서 발견하는 제자의 개념이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음을 본다.

³² Carl Wilson, op. cit., pp.17-45.

結 論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날 세계적으로 波及되고 있는 제자운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요청되는 제자의 개념을 여러 각도에서 파악해 보았다. 일반적 의미에서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신약성서적 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檢討한 결과 제자의 개념이 보다 積極的으로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배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부분을 희생시킨 자들이라는 새로운 局面을 알게 되었다. 특히 *μαθητής*가 신약성서에서 사용된 세가지 類型을 통해 그것이 일반적인 改宗者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특별한 敎理體系를 따르는 종교적 무리를 일컫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훈련되고 있는 제자의 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12제자, 또는 70인의 제자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함을 보았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는 일에 그의 생애의 역점을 두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³³⁾ 그분의 主 事役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곧 세계구속을 위한 그분의 전략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탄생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필요했던 제 1세기에 필요했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존재이다. 이러한 제자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신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³⁴⁾인 것이다.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망각되었던 제자 삼는 일이 현대에서 다시 活氣를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기존 교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³³⁾ Allen Hadidian, *Successful Discipling* (Chicago: Moody Press, 1979). p. 7.

아니라 선교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또 계속 번져가고 있음을 注目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이 운동의 맥을 잡고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교육학을 定立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生産的인 弟子化에 우리 자신을 적용할 시기가 目前에 도래한 것이다.

(전임강사 : 기독교교육학)

參考文獻 目錄

박영록(譯). 「선생예수」. J.M. 프라이어 原著. 서울 : 침례회출판사, 1978.

한국어 사전편찬회(編). 「한국어대사전」. 서울 : 현문사, 1964.

Arndt, William F. and F. WilBub.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7.

Bruce, A.B. *The Training of the Twelve*.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9.

Buttrick, George A. and Others.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2nd ed. Vol. I.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Coleman, Robert E.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Old Tappen: Fleming H. Revell Company, 1977.

Dana, H.E. *The New Testament World*. Tennessee: Broadman Press, 1944.

Eims, Leroy.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Navpress, 1978.

Gerber, Virgil. *A Manual for Evangelism/Church Growth*.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3.

Grimm, Carl L.W. *A Greek-English Lexicon*, trans. by Joseph H. Thayer. Edinburgh: T&T. Clark, 1956.

Hadidian, Allen. *Successful Discipling*. Chicago: Moody Press, 1979.

Henrichsen, Walter A. *Disciples are Made-not born*. Wheaton: Victor Books, 1976.

Kittel, Gerhar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Bible*. trans. and ed. by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8.

Kuhne, Gary W. *The Dynamics of Discipleship Train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Kuhne, Gary W. *The Dynamics of Personal Follow-Up*.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7.

MacArthur, John. *The Charismatic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

Neilson, William A. (ed.).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2nd ed. Massachusetts: G.&C. Merriam Company, 1959.

Tregelles, Samuel P. (trans.).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Wilson, Carl.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Disciple Build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8.